

젊은 날의 아픈 초상 찢긴 한지에 스며들다

December 9, 2017 | 조상인 기사



題字: 조당 이무호

권영우 '무제'

조상인기자 ccsl@sedaily.com

젊은 날의 아픈 초상 찢긴 한지에 스며들다

간담에 눈이 내렸다던가.
사는 동안에 따라 눈이기도 했고
진눈깨비를 수 있고.
비가 내리다 말았을 수도 있겠다.
이도저도 떨어지지 않은 밤이었다면
추나 끝에 달방거리던 불방울이 뿜은
고드름이라고 해도된다.
눈이 내리면 제네로라라
베르고 베르디엔 권영우(1926-2013)의
1985년 작 '무제'이다.
이슬푸러운 겨울밤
갓 내리기 시작한 눈송이처럼 경건하다.
푸른 물감이 스민 화선지 사리로
클로드 아실 드뷔시(1862-1918)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그 중에서도 '달빛'의 선율이
베어 나오는 듯하다.
은은함 때문만은 아니다.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듯,
자국이 돌린 구멍에서
미세한 열량이 균일 되어 변해가고
물감이 따라 퍼져간다.
순바를 따르는 솜뿔에는
격정도 과장도 없지만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온다.
권영우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피아니스트가 건반 한두 개 짝이놓고
청중의 숨결까지 다음 소리에 담으려
잠시 기다리는 것처럼.
피우는 물감을 탄색으로
그것이 결코 퍼져나가
유연의 효과를 그리기까지
숙육이 커가된다.
푸른 물감에 물을 섞어
점투분 색을 띠는 그 갈라진 자리는.
파리엔 갈일이 아니라
새까미 웃음이 튀겨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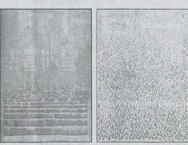


권영우 '무제' 1985년작, 화선지에 먹과 과수, 224x170cm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권영우 작가는 한지를 뽀얗고 바탕을 만든 다음
또 한지를 바르고 또 덧바르는 식으로 여러 장 겹
쳐 다 그린 후 일순 갈로 그려 내린다.
이 칼자국 때문에 벽과 과수를 섞은 반투명의
정화색 물감은 종이 뒷면에 칠한 것인데도 앞면
까지 색이 나타낸다. 이러한 칼질이 그린 선을
따라 틈을 파고 들어간 물감이 화면의 표면에 다
양한 윤곽의 파문을 일으킨다. 문더나의 초록 빛
강 등 원색이 자신의 존재를 화려하게 뽐내는 것
과 달리 권영우의 색채는 어둡 속에 녹아드는 중
성적 색감이라는 색 표현 태도를 이룬다.
권영우의 작품을 두고 어떤지런 감상 께치기를
만추고, 일제치어던 1920년에 함경남도 아현
에서 태어나 그림 재주를 살려 (현재 강원기의 어
는 예술지망생들처럼) 일본 유학을 생각했으나
태평양전쟁으로 집을 잃고 영화사에 취직했던 그
의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면, 혹은 1946년 한국
최초로 미술대학을 설립한 서울대의 동양학과 1
기도 입학해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던 중 0.25센
티가 발발하고, 학교가 문을 닫은 동안 충군화가
다섯로 생활을 누렸던 그의 젊은 날들을 되짚는
다만, 단행 이래로 그가 베풀어온 그로테스크한 상상하
가 된 그의 1985년작 '무제'를 두고 이슬 푸는
런 미사치어나 주연을 비추는 조만만, 폭죽을 연
상할 지도 모른다. 작가는 "그저 그리고 싶으니

한지를 찢거나 뚫고 덧대어 새 입혀
빗물-진눈깨비-고드름같은 보이지만
6·25전쟁시 중군회가의 상흔 담아
조국 분열-총구멍 등 표현했음수도



권영우 '74-9(원작), '무제'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까"라며 최소 적은 일을 받았지만 전쟁의 상흔을
게속이 붉은 채 소리 내 읊어보지 못한 세대였기
에 작품 속 돌린 구멍과 찢긴 줄기를 두고 총구멍
과 상처와 관련된 조국통 아이기쁨을 누 아니
라고 하겠다는가. 여러 겹으로 뽀얗고 탄탄하고 수
한 백색의 종이와 이러한 칼질로 나뉜 채 간신히

영겨늘은 한상에서 눈감는 남자가 고집에 다시는
가보지 못한 아복 태생 자기의 행수도 느껴진다.
권영우가 평생을 보아준 갈라진과 찢긴의 미학,
바탕과 결집, 스민과 배연의 미학은 우리네 근현
대의 큰 틀에서 다시 보아할 대목이기도 하다.
본적 추상작업으로 넘어가기 전 청년기 권영
우는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로 전위적인 시도를
계속했다. 전통을 어떻게 동양화에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민했기에 고급 화선지 대신 허름한
종이를 쓴거나 수채물감으로 동양화를 그려보
고, 서양화 전공수업에 들어가 누드모델을 놓고
자업하는 등 변상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스정한 1957년작 '복색'이 있는 후는 전쟁에 대
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애쓰던 시기에, 그
것도 먹을 사용한 한국화를 통해 정성을 다했다
는 점이 참신했다. 용산의 기린교회 앞에 폭죽으
로 부사친 기자-유조명크가 잇기까지한 뛰어난
참모 위에 나뉘는 구멍이다. 권영우가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그리 국전(國
展) 장관상한 변은 백두산의 향설'이다. 한바
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그림들을 떠올리게 하는
저항적인 그림이었다. 당시 그 그림에서 소재
를 찾아 변형해 표현하는 시도를 했었다. 그해 어
령향화에 다녀는 대한체육수속중경이 그림이었

했다. 조선에서부터 이어온 관념산수, 실경산수
화의 전혀 다른 시도였다.
이후 작가는 자립목(自給木)에서 붓과 먹을
내려놓은 채 오로지 종이종이만으로 작업하기 시작
다. 1970년대 중반 작품인 '74-9'는 폭 눈 쌓인
계단을 보는 듯하다. 조금 누런 듯한 황색의 띠는
권영우 자신이 비유했다 "마치 눈부기 종이에
발광음이 해놓은" 것 같다. 1980년 무렵의 하얀
작품들은 자기마한 요점이 만드는 부조 효과, 고
경이로 높은 눈송이 같은 그림, 칼로 도려낸 자리
가 보였던 나무결집을 생각하게 하는 등 자유자
재의 변주로 발전진다.
이 무렵 작가는 중앙대 교수 자리를 박아치고 프
랑스로 떠났다. 1979년부터 11년간 프랑스에 머
무르며 국제적 조형감각을 인정받았고 1990년
호암미술관 최고전으로 화려한 귀국을 알렸다.
1998년에는 이례적으로 70대의 화로임에도 국
립현대미술관 총회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당시
전시장은 나뭇가지, 부채, 병, 반호반, 장롱,
꽃, 원사 등 일상의 사물들을 화면에 붙인 후 화
선지로 덮은 작품들로 당시 눈앞의 장면을 창조했
었다. 예술인 회랑이란 작가가 타계한 2013년
21일 그를 빈두로 한 한국의 단색화가 새겨져
재조명을 받으며 그의 이름이 다시 거대하게 시작
했다.